

대학생의 실패에 대한 반응성,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대학생의 행복, 목표인식, 그릿, 연령,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Received: April 15, 2021
Revised: July 13, 2021
Accepted: August 31, 2021

진예민¹, 배유진², 양수진³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학생¹,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학생²,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³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07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What Makes the Difference in Reactivity to Failure:
Examining the Roles of Happiness, Goal Perception,
Grit, Age and Gender

E-MAIL:
sujinyang@ewha.ac.kr

Yemin Jin¹, Youjin Bae², Sujin Ya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³

© Copyright 20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실패 경험이 많아지는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 목표인식특성, 그릿, 연령 및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 변인에 따라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성(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 학습된 무기력, 실패공포)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만 18~25세 대학생 4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으며, 다중지표 다중원인(MIMIC)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패에 대한 개인 특성 변인이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 학습된 무기력,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행복과 목표인식특성이 높은 집단은 모든 실패 인식과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그릿, 연령, 성별에 따른 실패 반응성의 경우 일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실패에 대한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개인 변인으로서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 변인 및 목표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 학습된 무기력, 실패공포, 행복, 목표인식, 그릿, 다중지표 다중원인(MIMIC) 모형

실패는 일반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여겨져 왔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처리 과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이성원, 김종백, 2019)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McGregor & Eliot, 2005). 실패가 반복되면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저하하는 등(Shepherd, 2003) 실패는 트로마틱(traumatic)한 효과를 지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Baù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 인식되는 실패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학습 환경은 탈락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팽배해 있으며,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실패가 부모님에게 실망이나 수치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특히, 가시적이고 신속한 목표 달성이 중요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실패경험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김종백, 2017), 실패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이 상당할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반응성은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더 크게 성장하고 도약하게 되는 실패의 역설, 즉, 실패의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한 결과이다(Sternberg, 2001). 가령 자신이 실패한 부분을 극복하는 데에 더욱 집중했다는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나 운동선수들의 사례들은(Ericsson, 2004) 실패를 대하는 개인의 태도에 따라 후속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실패의 역설이 비단 특정 영역의 전문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발달단계마다 부여받는 새로운 과업에 도전하게 되며(Havighurst, 1952), 때때로 학업이나 취업과 같이 특정 시기에 맞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므로 도전에 따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경험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Kutney, 2008). 특히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은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변성하고자 하는 발달 시기적 욕구로 인해(Arnett, 2004), 능동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많은 도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더욱이 현재 유례없는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해서 보다 좁아진 고용시장의 압박과 학업 부담을 안게 된 대학생들은 실패의 가능성을 더 크게 짊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이를 적절히 극복하고 다음 도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을 발견하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반응성의 다각적인 측면을 함께 조명한 연구는 주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직 차원의 실패(McGrath, 1999; Baù et al., 2017; Madsen & Desai, 2010), 그리고 학업 장면(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희, 강혜원, 2007)에만 국한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차이와 이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패와 관련된 개인의 취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아직 실패에 대한 심리 내적인 작용에 대해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다중지표 다중원인(MIMIC)의 방법론을 이용할 것이다. MIMIC은 요인분석에 공변수를 결합한 방법으로, 결과변수를 잠재변수로 처리함으로써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요인을 설명하는 집단변수인 공변수를 허락하여 잠재평균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김수영, 2016),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실패 반응성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실패를 맞닥뜨린 개인의 반응은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과 부적응적인 실패 반응성으로 나누어진다.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이란 Stokes와 Blackburnm (2002)이 비유한 것처럼, 실패를 일방향 출구(one-way exit)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전문(revolving door)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행동적 결정 이론(Cyert & March, 1963)과 개인적 의사결정 이론(Kahneman & Tversky, 1979)에서는, 실패라고 여기게 되는 역치가 실패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McGrath, 1999). 즉, 다시 도전하더라도 성공하리라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실패 후에 도전을 포기하기 쉽지만,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도전을 지속한다는 것이다(Schunk et al., 1987; Zimmerman & Bandura, 1994). 이는 실패를 발판 삼아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응적인 마음가짐인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내적 탄력성인 실패내성을 포함한 건설적 실패 반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패 뒤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인지적 통제로 조절하고(Mcgrath, 1999),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은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의 핵심적인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또다른 건설적 실패 반응성의 대표적 변인인 실패내성은 학습된 무기력을 연구하던 중 발견된 심리적 반작용이자 실패에 저항하는 탄력성을 뜻하며(Clifford et al., 1988), 안정적인 성격 특성인 동시에 개인차가 있는 동기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Clifford, 1988). 이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을 인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반응성이다(홍국진, 한상철, 2014). 따라서 학업 장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패경험 후에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패 극복 행동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김영희, 강혜원, 2007).

한편 실패경험으로 겪게 된 좌절감으로 인해 향후 도전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며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Seligman, 1972), 그리고 실패 결과가 가져오는 수치심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인 실패공포가 그러하다(Conroy, 2001). 한국 학생들에게서 무력감은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 중 3위를 차지하는 요인인 만큼(박형수, 2017), 학업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적응적 반응성이다. 그러나 학습된 무기력은 비단 학업 실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 연령대에 걸쳐 발견된다는 점에서(Ruthig et al., 2004), 열심히 해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대학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최현정, 이동귀, 2019).

학습된 무기력이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좌절과 우울에 잠기는 반응성이라면, 실패공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Conroy, 2001). 실패공포는 주로 완벽주의, 지연행동(임성문, 2007)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백지은, 이승연, 2016). 그러므로 실패공포는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는 실패 결과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Birney et al., 1969).

상반된 실패 반응성에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실패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건설적인 반응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개인 변인은 무엇일까? 누구

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패 상황 앞에서, 일부 개인은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활용하여 정신적 안녕감을 지키고, 목표에 대한 동기와 성취 가능성을 명확하게 재정보하여 더욱 몰입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경 상황에서 발휘되는 그릿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자원 삼아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특성인 연령이나 성별 역시 부정적 실패 사건에 대한 유연한 자세와 대처에 있어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로,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행복감이 긍정적인 결과이자 동시에 선행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Fredrickson(2001)의 확장 및 구축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으로 뒷받침된다. 이 이론은 행복한 사람이 목표 성취나 직업 수행, 대인관계, 웰빙 수준 등이 높다는 여러 영역의 연구 결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Lyubomirsky et al., 2005) 부정 정서 극복과 긍정 신념 수용이 건설적 실패 반응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의 긍정 정서가 부정 정서를 상쇄하는 효과(undoing effect)를 가지듯(Fredrickson, 2011), 행복감은 실패에서 오는 부정 정서를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긍정 정서는 개인 자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결과들로 연결되는 나선형 상승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Fredrickson, 2002), 실패 경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지적 자원인 인지적 유연성이나(Dennis & Vander Wal, 2010), 심리적 자원인 예방적 대처기술(Aspinwall & Taylor, 1997), 사회적 자원인 친밀한 관계(Berscheid & Reis, 1998) 등은 실패와 같은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 웰빙의 상향적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한다(Fredrickson, 2000; Fredrickson & Cohn, 2008). 그러므로, 긍정 정서와 그로부터 구축된 자원들은 실패나 좌절의 상황에서도 탄력성을 고양시키고, 사고-행동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건설적으로 대처하게 할 것이다.

또한 실패 후의 부정적 반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노력과 긍정적 인식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목표인식특성의 수준에 따라서도 실패 반응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인식특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목표 자율성, 목표 몰입, 내재적 가치, 성취가능성으로 구성된 개념이다(신종호 등, 2012). 구체적으로, 목표 자율성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나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Black & Deci, 2000; 신종호 등, 2012),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목표를 결정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목표 몰입은 목표 추구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력과 고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는 태도를 의미하며(Hollenbeck et al., 1989),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내재적 가치는 개인이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혹은 만족감을 뜻하며(Ryan & Deci, 2000; Wigfield & Cambria, 2010), 목표 달성의 결과물이 아닌 수행 과정 자체에서 얻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성취가능성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이다(신종호 등, 2012). 즉, 목표인식특성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목표인식특성의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 개인이 실패를 마주했을 때의 반응성은 달라질 수 있다. 건설적 실패이론을 주장한 Clifford(1984)는 개인이 가진 목표특성에 따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실패 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목표가 개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다. 과제 수행에서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된 상황에서는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정보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d'Ailly, 2004). 따라서 목표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목표를 가졌으므로 더 적응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목표 몰입 역시 실패 후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 몰입은 역경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노력하게 하므로(오현석 등, 2009), 실패 후 부적응적인 반응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목표 추구 과정에서 목표에 대한 내적 동기와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된 경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과제 지속력이 유지된다(Vansteenkiste et al., 2005). 무엇보다 내재적인 동기에 더불어 목표 성취에 대한 가능성이 더해질 때 실패 후 긍정적인 반응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김은하, 2014). 정리하자면, 목표인식특성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대해 자율성, 몰입, 내재적 가치, 성취가능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실패경험을 하더라도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비인지적인 성격 특성으로(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실패 반응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와 좌절이 예상되어도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에서(Datu et al., 2018), 성취뿐 아니라 실패의 부정적인 영향의 극복을 돕는 훌륭한 자원이다(Duckworth et al., 2011). 선행연구들 역시 그릿이 학업 성취에 대한 예측에 더불어(이정림, 권대훈, 2016), 학업적 자기 조절과 자기효능감(임효진 등, 2016), 그리고 개인적 안녕감(Duckworth, 2016)에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그릿은 단지 목표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지속하는 것을 넘어,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적인 측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안태영, 양수진, 2020), 적극적으로 개인의 시련 극복 역량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김진구, 박다운, 2018).

실패 후 반응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역할 갈등 및 환경적 요구로 인해 진로선택이 쉽게 좌우될 수 있다(Farmer, 1985). 특히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많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알려져 있다(손은령, 김계현, 2002; 장재윤 등, 2004).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목표 추구 과정에서 여성들이 더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 후 반응성도 남성과 다를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별 직종 분리 혹은 유리천장과 같은 성 불평등 현상들은 여성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무력감을 느끼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패 후 반응성은 연령차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연령에 따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의 시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18)에 따르면, 대학교 저학년(만 19~21세)은 관계적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며 현재 자신이 놓인 시기를 탐색하는 시기, 실험 시기, 자유를 누리는 시기로 인식한 반면, 고학년(만 22세~24세)은 진로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자립해야 하는 시기,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로 인식했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게 되고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반응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한편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실패경험의 누적이 학습된 무기력을 높이고 실패내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나(valas, 2001; 황매향 등, 2007), 다른 한편에서는 슬픔, 불쾌함과 같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며(Charles & Carstensen, 2007), 실패내성이 발달과정에서 형성되어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므로(오희숙, 2002), 실패에 적응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연령에 따라 실패 이후 반응성이 달라질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 및 성별과 더불어 개인 내적 자원인 행복, 목표인식특성, 그리고 그것의 수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연구 문제. 대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실패 반응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1-1. 개인 내적 자원(행복, 목표인식특성, 그것)에 따라 실패 후 반응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1-2.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실패 후 반응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진입기의 만 18~25세 대학생 4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 링크를 대학 커뮤니티에 게재하거나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35명을 제외한 449명(남:196, 여:253)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72세($SD=1.92$)였으며,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는 서울 및 수도권(59%), 충청도(14%), 강원도(0.4%), 경상도(23.2%), 전라도(1.8%), 기타(1.6%)로 응답되었다.

연구도구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경험이 개인에게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지각하는 실패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Haimovitz와 Dweck(2016)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Parents' Failure Mindset Scale)를 기반으로 박서단(2020)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타당화한 실패마인드셋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예: "실패경험은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든다.")으로, 본 연구에서는 퇴보적인 관점을 측정하는 문항을 역채점하여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이라는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경험을 긍정적이며 성장적으로 생각하는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서단(2020)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90으로 나타났다.

실패내성

대학생의 실패내성을 측정하기 위해 Clifford (1988)가 개발한 Academic Failure Tolerance Scale을 한국 실정에 맞춰 표준화 및 타당화한 김아영(2002)의 한국판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실패 이후의 감정적 반응 6문항(예: “학교에서 실수를 하면 기분이 매우 나쁘다.”), 행동적 반응 6문항(예: “학교 시험에서 나쁜 결과를 얻으면 틀린 것은 공부해서 다시 풀어본다.”), 과제수준선호 6문항(예: “좀 틀리더라도 어려운 과제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으로 총 3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7~.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3, 감정 .85, 행동 .75, 과제수준선호 .87로 나타났다.

학습된 무기력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신기명(1990)이 개발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판단 척도를 주지은(1999)이 수정·보완하고 배정희(2008)가 요인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 8문항(예: “아무 까닭 없이 슬퍼질 때가 있다.”), 자신감 결여 9문항(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수동성 6문항(예: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지속성 결여 5문항(예: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으로 총 4개 하위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된 무기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정희(2008)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84~.94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4, 우울 .93, 자신감결여 .92, 수동성 .89, 지속성 결여 .82으로 나타났다.

실패공포

실패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Conroy 등(2002)이 개발한 실패공포 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 PFAI-R)를 임성문(2006)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7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잘 해낼 때에 비해 나는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4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부족한 내 재능을 탓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4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게 보인다.”),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덜 갖는다.”),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예: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으로 총 5개 하위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공포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성문(2006)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4,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86, 자신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80,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60, 중

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82,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83로 나타났다.

행복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삶의 만족 3문항(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긍정 정서 5문항(예: “행복한”), 부정정서 6문항(예: “짜증나는”)으로 총 3개 하위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 구인은 삶의 만족 문항과 긍정 정서 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에서 부정정서 문항의 점수를 빼 값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으로 평정되며,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8, 각 하위요인별 .82~.89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2, 삶의 만족 .80, 긍정 정서 .86, 부정정서 .79로 나타났다.

목표인식특성

목표인식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종호 등(2012)이 개발한 공학전문가 목표인식검사의 목표인식 특성 구인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표현되어 있는 ‘공학전문가로서의’를 ‘내 분야에서 의’로, ‘공학 분야’를 ‘내 분야’로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성 2문항(예: “내 분야에서 삶의 목표는 내가 결정한 것이다.”), 몰입 2문항(예: “내 분야의 목표와 관련된 공부나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두한다.”), 성취가능성 2문항(예: “나는 내 분야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고 자신한다.”), 내재적 가치 2문항(예: “내 분야에서 세운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으로 총 4개 하위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 몰입, 성취 가능성, 내재적 가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종호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6, 각 하위요인별 .86~.92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88, 자율성 .78, 몰입 .66, 성취가능성 .78, 내재적 가치 .82로 나타났다.

그릿

역경과 고난에도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인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이수란 등(2020)이 개발·타당화한 한국판 삼원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기존의 그릿 척도의 하위요인 ‘열정(흥미의 지속성)’이 지닌 한계점(임효진, 2017; 2019)을 보완하여 목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열정을 즐거움과 의미라는 두 차원으로 새롭게 구성한 척도이다. 해당 척도는 노력-지속성 10문항(예: “나는 일단 목표를 세우면 시간이 지나도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다.”), 열정-즐거움 5문항(예: “나는 이 활동을 하는 과정이 즐겁다.”), 열정-의미 5문항(예: “나는 이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으로 총 3개 하위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란 등(202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력-일관성 .84, 열정-즐거움 .75, 열정-의미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Mplu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 값(Cronbach's 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행복, 목표인식특성, 그릿, 연령, 성별의 수준에 따라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 학습된 무기력, 실패공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지표 다중원인(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MIMIC) 모형을 활용하여 잠재평균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MIMIC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공변인(covariate)이 더해진 모형이다(Joreskog & Goldberger, 1975). 모형 내 공변인은 집단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로 코딩되어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이 가능하며, 다른 혼입 변인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Kaplan, 2008). MIMIC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독립변수를 연속형으로 설정하여 내생변수에 대해 외생변수가 가지는 설명력이 경로계수로 도출되는 반면, MIMIC에서는 집단변수를 설정하므로 이때 도출된 경로계수는 두 집단의 잠재평균 차이를 의미한다(김수영, 2016) 본 연구에서 집단의 구분은 중심경향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치가 평균이라는 점과 평균 절단점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상하 집단의 각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였다는 점에서

평균 값(그릿 평균: 3.63, 목표인식특성: 3.71, 행복 평균: 6.23)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릿 집단은 상 집단 42.5%, 하 집단 57.5%로, 목표인식특성 집단은 상 집단 56.1%, 하 집단 43.9%로, 행복 집단은 상 집단 55.5%, 하 집단 44.5%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누어졌다. 정리하자면, 평균 하 집단을 0으로, 평균 상 집단을 1로 코딩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코딩한 후 MIMIC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과 MIMIC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김수영(2016), Kline(2011), Boomsma(2000)이 제안한 χ^2 검정,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Bentler, 1990).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05~.08의 값일 경우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Brown, 2009). 또한, SRMR은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tler, 1999).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11)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실패내성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학습된 무기력, 실패공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공포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MIMIC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공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 실패공포,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지표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측정오차가 커져 추정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Little 등(2013)의 주장에 따라,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을 요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묶음 시 세 개 묶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으며(Little et al.,

2013; Matsunaga, 2008), 이에 따라 세 개의 지표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실패내성의 적합도가 좋지 않아 구인이 다차원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고유분배 고립전략의 하나인 방사알고리즘으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42.193(df=84)$, CFI=.963, RMSEA=.065(CI=.055~.074), SRMR=.053).

MIMIC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행복, 목표인식특성, 그릿, 연령, 성별의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 실패공포, 학습된 무기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MIMIC 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MIMIC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449)

|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 - | .479** | -.482** | -.454** | .509** | .456** | .405** | .085 |
| 2. 실패내성 | | - | -.472** | -.479** | .488** | .459** | .384** | .088 |
| 3. 학습된 무기력 | | | - | .700** | -.475** | -.534** | -.777** | -.086 |
| 4. 실패공포 | | | | - | -.362** | -.444** | -.600** | -.110* |
| 5. 그릿 | | | | | - | .647** | .426** | .078 |
| 6. 목표인식특성 | | | | | | - | .472** | .015 |
| 7. 행복 | | | | | | | - | -.028 |
| 8. 연령 | | | | | | | | - |
| 평균 | 3.55 | 3.50 | 2.50 | 2.73 | 3.63 | 6.23 | 3.71 | 21.7 |
| 표준편차 | 0.69 | 0.66 | 0.69 | 0.70 | 0.51 | 3.21 | 0.65 | 1.91 |
| 왜도 | -.52 | -.15 | .34 | .19 | -.38 | -.41 | -.55 | .23 |
| 첨도 | .64 | -.03 | -.43 | -.22 | .35 | -.21 | .62 | -.77 |

* $p < .05$, ** $p < .01$

범위 내의 값을 나타내어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81.675(df=139)$, CFI=.949, RMSEA=.062(CI=.055~.070), SRMR=.050].

다음으로 각 잠재변인에서 집단 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은 연령을 제외한 그릿(β

=.254, $p<.001$), 목표인식특성($\beta=.149$, $p<.01$), 행복($\beta=.186$, $p<.001$), 성별($\beta=.12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그릿과 목표인식특성, 행복의 수준이 높은 집단 및 남성 집단에서 실패마인드셋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실패내성 역시 연령을 제외한 그릿($\beta=.296$, $p<.001$), 목표인식특성($\beta=.161$, $p<.01$), 행복(β

표 2. 잠재변인에 대한 각 집단 변수의 경로계수

| | 경로 | 비표준화 | 표준오차 | 표준화 |
|---------------|----------------|-----------|------|-------|
|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 ← 그릿 상하 집단 | .328*** | .052 | .254 |
| | ← 목표인식특성 상하 집단 | .193** | .051 | .149 |
| | ← 행복 상하 집단 | .241*** | .045 | .186 |
| | ← 연령 상하 집단 | .033 | .046 | .026 |
| | ← 성별 | .161** | .047 | .124 |
| 실패내성 | ← 그릿 상하 집단 | .379*** | .052 | .296 |
| | ← 목표인식특성 상하 집단 | .207** | .052 | .161 |
| | ← 행복 상하 집단 | .060*** | .046 | .157 |
| | ← 연령 상하 집단 | .018 | .047 | .014 |
| | ← 성별 | .150* | .047 | .117 |
| 학습된 무기력 | ← 그릿 상하 집단 | -.109 | .045 | -.065 |
| | ← 목표인식특성 상하 집단 | -.328*** | .043 | -.195 |
| | ← 행복 상하 집단 | -1.008*** | .033 | -.601 |
| | ← 연령 상하 집단 | -.032 | .039 | -.019 |
| | ← 성별 | -.161* | .039 | -.096 |
| 실패공포 | ← 그릿 상하 집단 | -.091 | .052 | -.058 |
| | ← 목표인식특성 상하 집단 | -.304*** | .050 | -.192 |
| | ← 행복 상하 집단 | -.673*** | .041 | -.426 |
| | ← 연령 상하 집단 | -.169* | .045 | -.107 |
| | ← 성별 | -.041 | .046 | -.026 |

주. 집단 변수(0: 각 잠재변인 수준 평균 하 집단, 남성, 1: 각 잠재변인 수준 평균 상 집단, 여성)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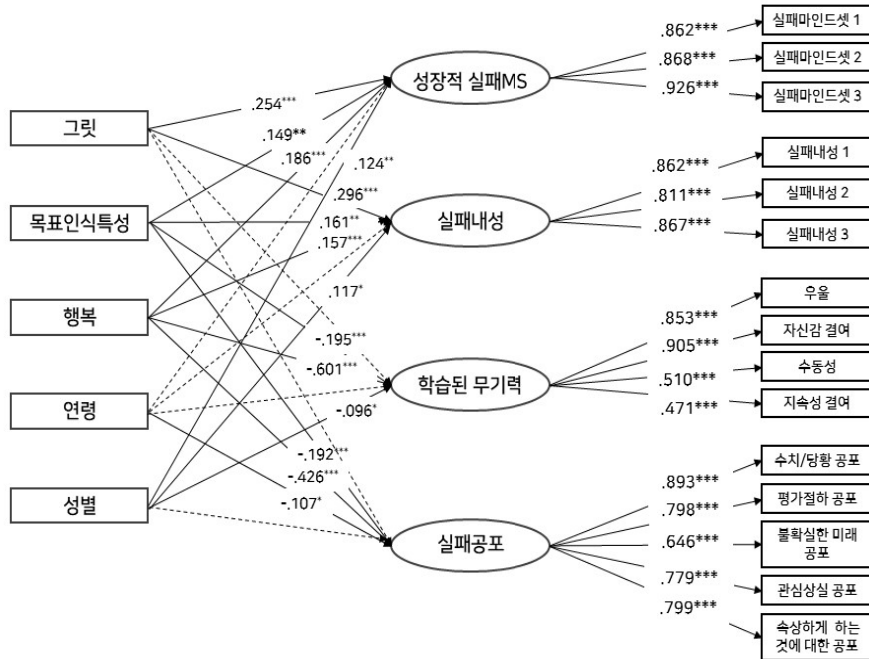


그림 1. MIMIC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p<.05$, ** $p<.01$, *** $p<.001$)

= .157, $p<.001$), 성별($\beta=.117$,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그릿과 목표인식특성, 행복의 수준이 높은 집단 및 남성 집단에서 실패내성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면, 학습된 무기력의 경우 연령과 그릿을 제외한 목표인식특성($\beta=-.195$, $p<.001$), 행복($\beta=-.601$, $p<.001$), 성별($\beta=-.096$,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목표인식특성과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 및 여성 집단에서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패공포는 그릿과 성별을 제외한 목표인식특성($\beta=-.192$, $p<.0.1$), 행복($\beta=-.426$, $p<.001$), 연령($\beta=-.107$, $p<.05$)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즉, 목표인식특성과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 및 낮은 연령 집단에서 실패공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MIMIC 모형을 활용하여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실패 반응성에 있어 어떠한 개인 특성들이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 목표인식특성, 그릿, 연령, 성별에 따라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건설적 실패 반응성(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과 부정적 실패 반응성(학습된 무기력, 실패공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패를 다양한 장면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실패 이후 건설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 수준에 따른 차이는 실패 이후 건설적 및 부적응적 반응성 모두에서 나타났다. 행복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성장적 실패마

인드셋과 실패내성이 높았으며,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공포를 나타냈다. 즉,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개인 내적 자원이 증진되었으며, 실패로 인한 부정 정서 및 반응성을 더욱 쉽게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Fredrickson(2001)의 긍정 정서의 확장 및 구축이론이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긍정 정서가 사고와 행동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에 활용 가능한 내적 자원을 축적시키며, 이는 다시금 긍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Fredrickson, 2001). 따라서 행복이 구축하는 인지적, 심리적 자원이 도전과 실패에 대처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역량으로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목표인식특성'의 수준 역시 실패 이후 건설적 및 부적응적 반응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높은 목표인식특성을 지닌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실패내성을 보였으며, 낮은 목표인식특성을 지닌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높은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공포를 보였다. 이는 개인의 목표특성에 따라 실패경험 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건설적 실패이론을 주장한 Clifford(198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목표에 몰입할수록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오현석 등, 2009), 목표에 대해 내재적 동기와 더불어 성취 가능성을 지닐 때 실패 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은하, 2014; Vansteenkiste et al., 2005)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그릿' 수준에 따른 차이는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실패 이후 건설적인 반응성(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에만 유의했으며, 그릿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실패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김진구, 박다운, 2017; 안태영 등, 2020; Duckworth, 2016)에서 그릿과 실패내성 및 성장마인드셋의 높은 관계성을 밝혀온 사실과 일치한다. 특히, 성장신념은 그릿을 예측하는 변인일 뿐 아니라(이정림, 권대훈, 2016), 그릿과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을 예측하는 기제로 이해된다(안태영 등, 2020). 안태영 등(2020)은 부모가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한 학생들이 실패내성이 높았으며, 이것이 그릿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가능성을 미리 자각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Datu, et al., 2018). 목표한 바를 성취해낸다는 것은 그 과정이 인고의 시간이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각오하는 것이기에(Duckworth et al., 2011), 그릿의 발휘는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반응성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릿과 건설적인 실패 특성인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실패 이후 반응성에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연령과 성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실패공포에서만 나타났다. 낮은 연령 집단이 높은 연령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실패공포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실패공포 수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나, 보편적으로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낮은 연령 집단이 고학년에 해당하는 높은 연령 집단보다 높은 실패공포를 보였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 경험이 적으며, 실패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더욱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비교적 경험이 많은 대학교 3, 4학년의 경우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경험이 개인에게 극단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패공포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실패내성, 학습된 무기력에서만 확인되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실패내성을 보였으나, 학습된 무기력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에서는 남성이, 부적응적인 실패 반응성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가 경험하는 실패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일이 분명히 구분되었으며, 현재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여성의 채용 및 승진의 기회가 적고, 유리천장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혜영, 정재명, 2010; 조혜원, 함인희, 2016).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여성에게 있어서 실패 이후 무력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반복된 실패 경험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최용선, 2000)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학습된 무기력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대학생들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진로장벽을 느꼈으며(김연중, 손은령, 2012), 능력에 상관없이 직업 선택에서의 제한, 불평등한 임금 문제 등을 겪기 때문에(민무숙 등, 2002), 무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패를 경험한 개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성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실패 반응성에 차이를 만

드는 개인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해보았다. 이를 통해 실패 상황에서 취약성이나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내적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실패를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하여 실패로 인한 부적응적인 반응에 주로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실패를 오히려 개인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되면서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에 대한 탐색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긍정적 및 부정적 실패 반응성의 다각적인 변인을 동시에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실패 반응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MIMIC모형을 활용한 집단 차이 검증을 통해, 개인 특성 변인마다 실패 이후 건설적 및 부정적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인진입기는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에 따라 여러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실패경험 이후 개인의 반응성에 따라 실패가 자원으로 작용할지, 심리적 손상으로 작용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실패 후 건설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 특성 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실패 반응성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복과 목표인식특성은 실패에 대한 건설적 및 부정적 반응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것은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반응성(성장적 실패마인드셋, 실패내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그것은 실패에 대한 건설적 반응을 주도함으로써 난관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시도 하는 것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반면, 행복과 목표인식특성은 더욱 전역적으로 실패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금 더 자세히 경로별 표준화 계수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건설적 실패 반응성인 성장적 실패마인드셋($\beta=.254, p<.001$)과 실패내성($\beta=.296, p<.001$)에서는 ‘그릿’의 표준화 계수가 가장 큰 반면, 부정적 실패 반응성인 학습된 무기력($\beta=-.601, p<.001$)과 실패공포($\beta=-.426, p<.001$)에서는 ‘행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데에는 그릿이 가장 큰 작용을 하며, 실패에 대한 공포와 무기력감을 덜 느끼도록 하는 데에는 행복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행복과 목표인식특성 수준만이 유일하게 실패 후 건설적 및 부정적 반응성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실패에 대한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으로써 긍정 정서의 활용 및 목표인식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에서 행복을 결과 변인으로만 보았으나(구재선, 2005; Lyubomirsky et al., 2005), 최근 긍정 정서의 확장 및 구축이론에 따라 행복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구재선, 서은국, 2012; Fredrickson,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행복이 실패경험에 대해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성취과정에서 목표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져 왔으나(하혜숙 등, 2018), 스스로 목표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탐구되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목표 자체에 담긴 자율성, 몰입, 내재적 동기, 성취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 인식을 의미하는 목표인식특성이 실패 이후 건설적인 반응성을 촉진하고, 부정적 반응성을 감소하기 위한 중요 변인임을 밝혔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에 누구나 경험

하게 되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성취보다는 실패경험에 주목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패 특성을 건설적인 반응성과 부정적인 반응성으로 나누어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패 관련 연구는 실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만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대학생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실패연구는 건설적인 실패특성인 실패내성에만, 혹은 부정적인 실패특성인 실패공포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고홍월, 2012; 한영숙, 2011). 하지만 개인이 실패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목표 성취뿐 아니라 그를 위한 도전과 후속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Carver et al., 2010; Loewenstein & Lerner, 2003), 실패 반응성의 특성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적인 실패 반응성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부정적 실패 반응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실패 특성을 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건설적 실패 특성과 부정적 실패 특성을 포괄적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개인 특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일하게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59%)과 경상도(23.3%)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개인의 실패 이후 반응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연령대를 만 18~25세인 대학생들로만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연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연령

의 차가 크지 않고, 성인 후기의 실패 반응성에 대해서는 살펴볼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넓혀 발달단계 별 실패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MIMIC 모형을 활용하여 잠재평균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건설적 및 부적응적 실패 반응성 변인들에서 집단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집단 변인의 수준에 따라 실패 반응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을 예측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로모형 혹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건설적인 실패 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성인진입기에 실패 반응성의 건설적 및 부적응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개인마다 실패를 겪은 이후 보이는 반응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개인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실패를 다루는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흥월 (2012). 대학생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 소진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3**(1), 125-147.
- 박형수 (2017.10.23). 학업 중단 이유는? 학생 41% “친구 관계 힘들어요”.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2038513>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35-50.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 157-184.
- 교육부 (2019). **OECD 교육지표 2019**. 공공누리, 6.
- 김연중, 손은령 (2012).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차원적 진로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3**(5), 2443-2461.
- 김왕배 (2014). 한국의 교육열. **지식의 지평**, (17), 104-120.
- 김은하 (2014). **목표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하, 신종호 (2018). 교실목표구조와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32**(2), 207-228.
- 김진구, 박다운 (2017).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투지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45-162.
- 김종백 (2017). 지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실패교육. **교육심리연구**, **31**(4), 745-766.
- 김현욱 (2020). 학업적 실패에 대한 일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4), 873-892.

- 민무숙, 허현란, 김형만 (2002). 여대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대학의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여성연구**, 63, 52-80.
- 류재준, 임효진 (2018). 성장신념, 자기결정성, 그릿의 관계에서 목표 유형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32(3), 397-419.
- 박서단 (2020). **실패마인드셋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정재명 (2010). 공직인사상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3(4), 7-31.
- 배정희 (2008). **인간관계, 학습사 및 동기적 변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 이승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99-122.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신기명 (1990). **학습된 무력감 진단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종호, 박수원, 이유경, 신상인, 이신형 (2012). 공학전문가 목표인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353-376.
- 안다휘, 이희승 (2017). 반복된 실패 상황에서 끈기 (Grit), 낙관성, 정서 및 인지 반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79-102.
- 안태영, 양수진 (2020). 그릿(Grit), 학업적 실패내성,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103-125.
-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그릿은 어떻게 길러지고 사회화되는가? 지각된 부모의 실패마인드셋 및 부모의 학업기대, 그리고 대학생의 실패내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03-121.
- 오현석, 성은모, 배진현, 성문주 (2009). 최고 수준 전문가와 보통 수준 전문가의 특성 비교. **아시아교육연구**, 10(4), 105-135.
- 이성원, 김종백 (2019). 학습실패개방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33(2), 289-316.
- 이수란,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한국판 삼원그릿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unpublished manuscript.
- 이현우 (2008). 아마추어 골프선수들의 골프입스현상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4), 215-227.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임성문 (2006). 각성형과 회피형의 만성적 지연행동 측정 Ferrari가 제안한 방법은 타당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91-102.
- 임성문 (2007).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대 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3), 323-356.
-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초등학생의 끈기 (Grit),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조절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7(3), 43-65.
- 임효진 (2017). 그릿(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 임효진 (2019). 그릿 개념의 재정립: 목적, 열정, 인내의 재검토. **교육심리연구**, 33(3), 317-339.

- 정지혜, 양수진 (2019). 성인 초기 청년들의 그릿과 정신적 안녕감: 진로소명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3), 37-59.
- 조혜원, 함인희 (2016). 기업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국사회정책**, 23(2), 49-81.
- 주지은 (1999).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용선 (2000).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자아 개념의 관계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정, 이동귀 (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89-205.
- 통계청 (2013). **2013 청소년 통계**, 18.
- 통계청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공공누리, 5-15.
- 하혜숙, 임호진, 황매향 (2017). 학업적응에서 끈기 (Grit) 와 목표의식, 성실성, 탄력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18(1), 371-388.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홍국진, 한상철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125-143.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7). A stitch in time: Self-regulation and proactive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1(3), 417-436.
- Baù, M., Sieger, P., Eddleston, K. A., & Chirico, F. (2017). Fail but Try Again? The Effects of Age, Gender, and Multiple-Owner Experience on Failed Entrepreneurs' Reentr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6), 909-941.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14). *Positive Psychology*. London: Pearson.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7(3), 461-481.
- Brown, T. A. (2009).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Guilford Publications.
- Carver, C. S., Scheier, M. F., & Segerstrom, S., C (2010). Optimism, In A. Wood., & N. Tarrier(Eds). *Positive Clinical Psychology* (pp. 819-906).
- Clifford, M. M. (1984). Thoughts on a 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 *Educational Psychologist*, 19(2), 108-120.
- Clifford, M. M. (1988).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risk-taking in ten-to twelve-year-old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15-27.
- Clifford, M. M., Kim, A., & McDonald, B. A. (1988). Responses to Failure as Influenced by Task Attribution, Outcome Attribution, and Failure Tolerance.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1), 17-37.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Conroy, D. E. (2004). The Unique Psychological Meanings of Multidimensional Fears of Failing.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6(3), 484-491.
- Co'te', J. (2000). *Arrested adulthood: The changing nature of maturity and identity in the late modern world*. New York University Press.
- Cyert, R., & March, J. (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John B. In a Miner(Ed), *Organizational Behavior2: Essential Theories of Process And Structure* (pp.60-73). Armonk, NY M. E. Sharpe.
- Datu, J. D., & Yuen, M., Chen, G. (2018). Exploring determination for long term goals in a collectivist context: a Qualitative study. *Current Psychology*, 37(1), 263-271.
- Dennis, J. P., & Wal, J. S. (2009).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41-253.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 - 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Kirby, T. A., Tsukayama, E., Berstein, H., & Ericsson, K. A. (2010).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 174-181.
- Ericsson, K. A. (2004). Deliberate Practice and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Expert Performance in Medicine and Related Domains. *Academic Medicine*, 79(10), S70-S81.
- Fredrickson, B. L.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 treatment*, 3(1), 1-25.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Haimovitz, K., & Dweck, C. S. (2016). What predicts children's fixed and growth intelligence mind-sets? Not their parents' views of intelligence but their parents' views of failure. *Psychological science*, 27(6), 859-869.
- Hochanadel, A., & Finamore, D. (2015). Fixed And Growth Mindset In Education And How Grit Helps Students Persist In The Face Of Ad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JIER)*, 11(1), 47-5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ybron, D. M. (2008).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In John B. Miner(Ed.). *Organizational behavior* (pp. 60-73). M. E. Sharpe.
- Jöreskog, K. G., & Goldberger, A. S. (1975). Estimation of a model with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of a single latent variabl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0(351), 631-639.
- Kahneman, D., & Tversky, A. (1979). On the interpretation of intuitive probability: A reply to Jonathan Cohen. *Cognition*, 7(4), 409-411.
- Kaplan, D.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undations and extensions*. Sage Publications.
- Kapur, M. (2008). Productive Failure. *Cognition and Instruction*, 26(3), 379-424.
- Keyes, C. L. (2007). Promoting and protecting mental health as flourishing: A complementary strategy for improving national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62(2), 95-10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 Kutney, Joshua P. (2008) Guaranteeing the Failure of First-Year Composition: Four Assumptions about Writing Expertise That Support an Unattainable Standard for Transf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Annual Review*, 15(8), 223-228.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oewenstein, G., & Lerner, J. S. (2003). The role of affect in decision making.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619-642). Oxford University Press.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cgrath, R. G. (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Mcgregor, H. A., & Elliot, A. J. (2005). The Shame of Failure: Examining the Link Between Fear of Failure and Sha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18-231.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Roth, G., Ron, T., & Benita, M. (2009). Mothers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s learning from their mistakes in class: The mediating role of adolescents self-disclosure. *Learning and Instruction, 19*(6), 506-512.
- Ruthig, J. C., Perry, R. P., Hall, N. C., & Hladkyj, S. (2004). Optimism and Attributional Retraining: Longitudinal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Test Anxiety, and Voluntary Course Withdrawal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4), 709-730.
- Ryff, C. D., & Singer, B. H. (2003). *The role of emotion on pathways to positive health*.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Series in affective science.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1083 - 1104).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nk, D. H., Hanson, A. R., & Cox, P. D. (1987). Peer-model attributes and childrens achievement behavio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1), 54-61.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Freeman.
- Shepherd, D. A. (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318-328.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eenkamp, J. B. E.,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1), 78-90.
- Sternberg, R. J. (2001). What is the common thread of creativity? Its dialectical relation to intelligence and wisdom. *American Psychologist, 56*(4), 360-362.
- Stokes, D., & Blackburn, R. (2002). Learning the hard way: the lessons of owner-managers who have closed their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9*(1), 17-27.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 Matos, L. (2005). Examining the motivational impact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framing and autonomy supportive versus internally controlling communication style on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6*(2), 483-501.
- Williams, J. M., & Bryan, J. (2013). Overcoming Adversity: High-Achieving African American Youths Perspectives on Educational Resilie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3), 291-300.

Zimmerman, B. J., & Bandura, A. (1994).
Impact of Self-Regulatory Influences on
Writing Course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4),
845-862.

What Makes the Difference in Reactivity to Failure: Examining the Roles of Happiness, Goal Perception, Grit, Age and Gender

Yemin Jin¹

Youjin Bae²

Sujin Ya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³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happiness, goal perception, grit, age, and gender, caused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failure (i.e., failure-is-enhancing mindset, failure tolerance, learned helplessness, and fear of failure). A total of 449 undergraduate students aged 18-25 were recruited for a web-based survey study. The 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MIMIC) model offered a good fit of the data and indicated that individua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ir reactivity to failure. Specifically, both happier individuals and those with clearer goal-perception reacted more positively to all failure-associated reactivities ($p < .05$). However, other relationships such as those between grittiness, learned helplessness, and fear of failure; age and reactivity types other than fear of failure; and gender and fear of failure, were not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further discussed.

Keywords: failure-is-enhancing mindset, failure tolerance, learned helplessness, fear of failure, happiness, goal perception, grit, 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MIMIC) model